

[붙임] 에세이 작성 서식

제 목	NG시대		
소속 대학	한림대학교	소속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
학 번	2021	이 름	고**
이메일		연락처	

“아, 꼰대야 뭐야-”

“하여튼 요즘 애들이 문제야!”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장년부터 그 이상의 어른들은 기성세대, 청소년과 청년들은 신세대라 불렸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어느 순간 알파벳으로 자신과 타인을 특정 짓는 시대가 되어 태어난 년도에 따라 해당 문자를 부여받는 세상이 됐다. 이는 X세대, Y세대, Z세대 등 총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필자의 경우 21살의 나이로 Z세대에 해당한다. 하지만 Z세대라 칭해진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 가끔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는 필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10대~20대가 공감할 것이다. 우리를 부르는 이름, 그것은 다름 아닌 MZ세대이니 말이다.

수많은 이들이 MZ세대는 독특한 개성, 자신감, 삶을 즐기는 자세를 지녔다고 말한다. 집과 회사 또는 학교라는 공간만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TV 방송, 유튜브, OTT, 마케팅, 광고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MZ세대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30~40대, 나아가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이런 MZ세대의 문화를 조금은 낯설게 느껴 동의어로 요즘 애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 1) '네이버TV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십분 클립'을 보면 많은 이들이 MZ세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해당 영상의 제목은 ["내가 꼰대였어 ㅇ0ㅇ " MZ세대가 없는 회식 자리에 꼰대 판정받은 장윤정 *|KBS방송]으로 MZ, 즉 요즘 세대랑 다른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며 진행된다. 이때 게스트들의 나이는 30세부터 46세까지로, 이들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서른, 서른하나라 우리도 MZ가 아니야”라며 방송 중에도 MZ세대와 자신들이 다름을 드러낸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으니, 요즘 애들과 다르다고 말하던 30대~40대 초반 출연자는 다름 아닌 MZ세대라는 것이다.

2)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로 1980~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을 일컫는다. 즉 통상적으로 알려지고 사용된 바에 따르면 'MZ=요즘 세대'이지만, 사실상 43살도 MZ세대였던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써 MZ세대를 알아보자. MZ세대는 인터넷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던 1980년대 초반부터 온전히 정착된 2000년 무렵에 태어난 이들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현 2022년 기준으로 10대 후반~43세까지가 MZ세대에 해당한다. 3)전체 인구의 34%, 즉 1/3에 해당하는 이들은 경제활동의 주체이며 이들로 인해 사회 분위기 조성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마케팅 업계에서는 통칭 MZ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MZ의 발단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앞서서도 여럿 언급했듯 사전적 MZ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MZ의 의미는 완전히 상반되니 말이다.

개인적이다·마이웨이·당연시된 스마트폰·SNS 사용 등 MZ세대를 대표하는 말로 알려진 문장만 봐도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의 모습이 그려지니, 오늘날 진정한 MZ세대는 Z세대 한정으로 굳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저 사전 속 텍스트로만 존재하는 MZ세대는 그저 디지털 시대로 묶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많은 이들이 MZ세대의 의미를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과거에 얽매인 사전적 정의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필자는 이에 대해 오늘날은 세대를 나타내는 용어에서부터 'NG가 나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나아가 같은 세대로 불리는 집단 내에서도 NG를 외치게 만든다.

요즘애들은... 꼰대... 짬민이... 고인물... 이는 같은 세대로 불리는 MZ세대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말 중 일부이다. 이미 그들은 서로를 다른 집단으로 인식해 누구는 틀에 박혀있다고, 누구는 예의가 없다고 서로를 비난한다. 지나친 MZ 열풍은 결국 세대, 나아가 세상에서 NG를 정당화해 버렸고, MZ세대는 NG시대가 되어버렸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MZ세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는 경제 발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실 년 도만 보면 20년 정도의 차이뿐이지만, 인터넷이 도입되며 눈 깜짝할 새에 발전한 세상 속에서 그들의 경험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제는 세대 규정보다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정도로 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각 연령층의 특징과 방향성, 그들의 생각은 다르기에 이에 관한 연구와 분석도 필요하다. 그러나 마치 모두가 그런 것인 양 세대별 특징을 규정지어 특정 세대를 '특정 시선'으로 보는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이는 '이해'라는 행위로 시작되며 차츰 서로 돕고 보완하여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약 5천만 인구가, 나아가 전 세계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영화 속에서의 NG는 이미 충분했다. 그러니 이제는 세대 구분이라는 틀 정도는 벗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해, 그것은 NG 난 시대에 유일한 해결책이다. 갈등보단 화합을 꿈꾸며 이미 시작된 우리의 삶을 먼 미래에 돌아본다고 상상해보자. 컷!을 외치며 박수 소리가 울린다면, 그보다 멋

진 영화는 없지 않을까. 누군가는 너무 이상적인 세상을 바라는 것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상적 세상의 완성보다는 비교적 이상적인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삶의 영화 진행되는 속에서, 그리고 그 끝에서 모두가 NG가 아닌 '오케이!'를 외치는 그날이 오기를.

1) 네이버TV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십분 클립 : <https://tv.naver.com/v/26713458>

2)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00733&cid=43667&categoryId=43667>

3) 시사저널 : <http://www.sisajournal.com>